

# 초창기 한국교회의 기독교 정체성(Christianity)

— 사회적 약자, 절제, 가정 등에 관한 「기독신보」 사설을 중심으로<sup>1)</sup>

황우선

(대덕대학교, 기독교저널리즘)

## 한글초록

「기독신보」는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근대사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신문이다. 한국인에게는 창간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초기 1915년에 창간되어 1937년까지 장구한 발행기간도 중요하고, 이 신문의 뿌리가 1897년 한국교회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신문의 전체 사설 1,478건 중 21%인 309건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었다.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설 309건 중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나타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절제, 가정 등에 관한 사설은 35.6%인 11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사설 중 7.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110건 중 사회적 약자를

---

1)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344회 학술발표회(2016.3.5.)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설은 63건으로 57.8%를 차지했고, 절제 21건(19%), 가정(부모, 결혼, 이혼 등) 17건(15%), 기타 9건(8.3%) 등의 순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의 내용으로는 빈곤 및 구제가 필요한 이들 18건(16%), 아동 13건(12%), 노동 12건(11%), 여성 11건(10%), 민중 5건(4.5%), 병자 4건(3.6%) 순이다. 「기독신보」가 기독교 정체성(Christianity)을 나타낼 수 있는 사설을 게재한 것은 일제강점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던 당시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겠다.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이러한 사회적 아젠다의 추진 및 실현은 물론 제시할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신보」의 사설에 나타난 기독교 정체성은 오늘날에도 기독교 저널리즘이 선구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 문제 제기

선교 활동에서 기독교 정체성(Christianity)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기독교 교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한국교회가 발행한 신문의 사설에는 사회적 쟁점을 다루며 기독교 정체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초기 한국 선교에서 교회가 한국사회를 향해 어떤 아젠다 및 메시지를 제시했는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적으로 해결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초기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실현하고자 한 기독교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역사적 고찰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종교유형별 인구에서 기독교가 19.7%(967만6천 명)로 1위를 차지했다.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불교(15.5%, 762만 명)는 10년 전보다 30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2위로 밀려났고, 천주교는 3위를 이어갔으나 7.9%(389만 명)로 10년 전보다 인구수 22.5% 감소했다.<sup>2)</sup> 1885년 기독교의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130년 만의 일이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을 거듭해오는 과정에 선교 매체로서 한국교회 신문의 저널리즘 역할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문서 선교를 중시하였고, 그 중 하나로 교파별 신문 및 교파연합 신문도 발행하였다. 신문을 통해 한국사회에 기독교를 알리며 언론의 역할을 하는 데 힘썼다. 선교지의 신문, 즉 “민족지는 타문화권을 향해가는 복음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선교지에 적합한 선교모델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체계적인 선행연구와 의미있는 자료도 제공”(이현주, 2017)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크리스도인 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은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이 창간된 바로 다음해(1897년)였고, 이 두 신문이 토대가 되어 「기독신보」가 탄생하였다<sup>3)</sup>.

「기독신보」는 1915년 12월 8일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파연합 주간신문으로 창간되어 지령 1128호(1937년 7월 21일)까지 매호 사설(社說)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신문의 사설은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기사(straight형)와 달리 의견을 전달하는 기사여서 발행 주체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사설은

2) <http://kostat.go.kr> (통계청)

3) 황우선, “「기독신보」(1915-1937): 초창기 한국교회 신문 연구,” 목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8.

해당 신문사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관하여 의견이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신보」에 게재된 사설도 마찬가지이다. 「기독신보」가 선교 목적에서 창간, 발행되었지만, 「조선크리스도인회보」나 「그리스도신문」이 초기 한국언론의 역사에서 일반종합신문의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사회적 문제에 관한 뉴스와 사설도 게재하였다<sup>4)</sup>.

이 신문은 창간 당시 일제의 강압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사안을 다루지 않고 순수 기독교신문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지만, 3·1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지 통치방식이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면서 시사뉴스를 보도하고, 때로는 항일적 논조의 기사를 게재하다 수차례 압수를 당하기도 하였다. 「기독신보」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문답게 사설에서 주로 기독교나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지만, 사회적 문제들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sup>5)</sup>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설 중에는 기독교적 가치에 따른 문제의식과 해결방안 제시를 살펴볼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그동안 「기독신보」의 사설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더러 있었으나, 「기독신보」 사설에 나타난 기독교 정체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절제하는 생활, 가정의 가치 등 기독교적 가치 및 기독교 정체성의 기준은 예수의 공생애 사역과 십계명에서 찾을 수 있다<sup>6)</sup>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110건의 「기독신보」 사설은

4) 황우선·김성해, “역사 속의 집단 정체성: 「기독신보」의 핵심 아젠다와 규범적 영역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0-4호(서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126.

5) 황우선, “「기독신보」(1915-1937): 초창기 한국교회 신문 연구,” 153-164.

6) 예수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사역이다. 예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어느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일제강점이라는 억압되고 암울한 사회적 상황과 가부장적 유교 이데올로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보여준 기독교 저널리즘의 상징적 모습이다. 따라서 「기독신보」 사설에 나타난 기독교 정체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초창기 한국교회의 역할을 보여준다. 절제운동을 통해 사회 변혁을 추구하고, 가정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초창기 한국교회의 독특한 역할이었다. 둘째, 기독교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선교전략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써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사회에 대한 기여이자, 한국교회 성장의 중요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사회를 위한 기독교 저널리즘의 역할 및 바람직한 방향성을 확인시켜준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저널리즘 활동에서 사회적 약자, 절제, 가정 등을 중시한 것은 시대적으로 선구적인 것이었다. 「기독신보」 사설 연구는 오늘날에도 기독교 저널리즘이 일반 언론보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명자적 역할에 나서야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선교 활동 그 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기독교와 「기독신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독교의

---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라고 말하였고, 그 외에 무엇이 더 있는지 묻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였다(마 19:18-21).

정체성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에큐메니칼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현하고자 하지만, 선교의 중심축인 교회가 에큐메니칼 선교에서는 기능적 역할로, 복음주의 선교에서는 영적 본질로 나뉘어졌다. 에큐메니칼 선교는 선교확장의 구조 및 본질적 선교이해, 선교사역의 접근 방향 모색에 선교의 의미를 둔 데 비해, 복음주의 선교는 선교사역보다, 성경을 통해 선교의 정체성을 선교현장에 두고자 하는 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sup>7)</sup> 그러나 교회가 이웃들의 작은 외침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외쳐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sup>8)</sup>는 데 대해 양쪽 모두 찬성할 것이다. 교회협의회(KNCC)로 대표되는 진보적 기독교 통일운동이 평화와 정의를 한반도에 실현하고자 하는 데<sup>9)</sup> 대해 보수적 기독교계에서 반대할 리가 없다. 평화와 정의는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고, 기독교 정체성의 구체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여 오늘날 전문인 선교가 필요하다<sup>10)</sup>고 하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은 시대에 따라 결코 달라질 수 없는 불변의 진리,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기독(基督)은 그리스도(Christ), 즉 예수(Jesus)를 뜻한다. 예수의 탄생은 구약성경

7) 박영환,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갈등, 대립, 그리고 미래선교의 대안적 제시,” 『신학과 선교』 37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3-4.

8) 이은경, “한국의 정치변화와 교회의 정치에 대한 사회참여 연구,” 『신학과 선교』 41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198.

9) 이종만, “선교적 관점에서 본 진보적 기독교 통일운동의 형성 과정,” 『신학과 선교』 36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10) 김태연, “1910년-2010년 현대 선교의 흐름 평가,” 『신학과 선교』 36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미가에서 예언되었다.<sup>11)</sup> 이 예언대로 예수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서 태어났고, 구유에 뉘었다.<sup>12)</sup> 성경에서 만왕의 왕으로 표현되는<sup>13)</sup> 예수가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보살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기독교에서는 해석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탄생 배경에 대한 이해 및 해석과 일치되게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3년의 공생애 기간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매진하였다.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이들, 병자, 장애인들<sup>15)</sup>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고,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으며, 어린이를 맞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sup>16)</sup>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11) 미가는 BC 8C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며, 미가 5:2의 내용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이다.

12) 누가복음 2: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13) 요한계시록 19:16.

14) 제자원, 『그랜드종합주석-누가복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5), 69쪽.

15) 이은미,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연구,” 『신학과 선교』 42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222-221.

16) 이와 관련된 성경 속의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19:21; 누가복음 17:12-14,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마가복음 10:13-16,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요한복음 8:10-11,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 정신, 곧 기독교 정신의 중요한 본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7)</sup> 또한 기독교에서는 절제와 가정을 중시한다.<sup>18)</sup> 일제강점의 한국사회는 음주, 흡연, 놀음 등이 만연하였으며, 일부다처제로 가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남존여비, 여필종부의 유교적 가치로 인해 여성이 심각하게 차별받았다.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한국교회는 절제, 가정의 가치, 여성의 인권을 중시함으로써 기독교의 정체성을 한국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었다.

「기독신보」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창간되었는데 크게 세 시기로 시기별 특징과 시기별 사실내용의 변화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sup>19)</sup>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 17) 예수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마태복음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18) 「기독신보」 사설에서의 절제는 주로 금주, 금연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근본적으로 절제할 것을 강조한다.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마 19:18) 등의 내용은 모두 인간의 탐욕을 금기시키는 것이다. 또한 십계명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는 내용은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9) 황우선, “「기독신보」(1915-1937): 초창기 한국교회 신문 연구,” 74, 124, 188; 황우선·김성해, “역사 속의 집단 정체성: 「기독신보」의 핵심 아젠다와 규범적 영역을 중심으로,” 154.

<표 1> 「기독신보」의 시기별 특징 및 사설 내용의 변화

분류	창간 초기 (1915.12-1920.1)	발전기 (1920.2-1933.6)	내부 갈등기 (1933.7-1937.7)
시기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 강점 초기의 암흑기</li> <li>- 조선총독부 기관지 3개(국한문혼용 「매일신보」, 일어신문 「경성일보」, 영어신문 「서울프레스」)만 발행</li> <li>- 순수 종교신문 표방(선교사 주도 한글신문 창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통치로 전환기</li> <li>- 한국인 신문발행 가능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 창간</li> <li>- 1920년 2월4일, 「기독신보」 시사 기사 게재 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3년 7월, 최초 한국인 사장 임명</li> <li>- 경영권 갈등으로 이후 폐간</li> </ul>
사설 내용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 종교신문 표방 불구, 23건의 사회적 문제 사설 게재</li> <li>- 주요 내용은 교육문제</li> <li>- 정치적 성격 또는 체제 비판사설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종류 시사 사설 등장</li> <li>- 사회문제, 생활문제, 교육문제 순서<sup>20)</sup></li> <li>- 청년운동, 해외소식, 농촌운동, 여성운동, 절제운동, 사회주의 등의 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제 및 사회문제 중심</li> <li>- 교육문제 중요성 감소</li> </ul>

창간 초기는 1915년 12월 8일 창간일로부터 1920년 1월까지이다. 일제가 헌병에 의한 무단통치로 식민 지배를 하던 시기이다. 조선총독부의 3개 기관지로 국한문혼용 「매일신보」, 일어신문 「경성일보」, 영어신문 「서울프레스」만 발행되었다. 일제강점이 시작되면

20) 「기독신보」는 이 시기에 일제로부터 16차례 압수를 당하는 언론탄압을 당했고, 사설 외의 기사에서 항일적 논조가 적지 않게 등장하였다. 창간사에서 밝힌 순수 종교신문을 지향하겠다는 표방과 다르게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을 해냈다(황우선, 2011).

서 한국인이 발행하던 모든 민족지는 일제에 의해 폐간되었고, 1909년 10월 1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국내 최초의 지방신문으로 「경남일보」가 창간되어 발행되었으나 1914년 말에는 폐간되었다. 「기독신보」 창간 당시 한국인을 위한 한글신문은 「기독신보」가 유일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진석은 「기독신보」만이 당시 한국의 언론을 대표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sup>21)</sup>. 실제로 「기독신보」는 교회신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해냈다.<sup>22)</sup> 이 신문은 창간사에서 순수 종교신문을 표방하였다. 정치적 성격의 기사나 일제강점 체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지 아니할 것을 다짐했고, 오직 기독교신문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독신보」 창간사, 1915.12.8).

이 시기에 23건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설이 게재되었고, 주로 교육문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1916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교육상의 큰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5차례 연속 게재하면서 가정이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모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임을 강조했다. 여성의 문제 및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여성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기독신보」는 1920년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1920년 2월부터 1933년 6월까지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인 사장이 취임하기 이전까지이며 실제로 「기독신보」가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며 발전한 시기이다. 일제가 한국인들의 3·1 독립운

21) 정진석, “「기독신보」와 한국의 언론문화,” 「기독교사상」 34-6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38.

22) 황우선·김성해, “역사 속의 집단 정체성: 「기독신보」의 핵심 아젠다와 규범적 영역을 중심으로,” 155.

동을 겪은 후 기존의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식민지통치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한국인의 신문발행을 허가해주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 3개 신문이 창간되었다. 「기독신보」는 2월 4일자 1면 사고(社告)에서 ‘시사(時事)’ 기사 게재를 공시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설이 등장하였고, 사회문제, 생활문제, 교육문제 등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청년운동과 해외소식, 농촌운동, 여성운동, 절제운동, 사회주의 등의 주제를 담은 사설도 등장하였다.

1920년대에만 15차례에 걸쳐 일제에게 신문을 압수당하는 언론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일제의 비위를 거스르는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이며, 종교신문을 추구하던 초기와는 논조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게 해준다<sup>23)</sup>(황우선, 2011; 황우선·김성해, 201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1). 1920년 5월 19일자 「기독신보」에는 “本報發賣禁止”란 제목의 사고가 공지되었다. 7월 7일 발행되는 239호가 당국의 기위에 축하하여 발매반포의 금지를 당하였다며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일제로부터 압수당하지 않고 발행된 「기독신보」에서도 항일적 논조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거나, 석방된 소식, 재판의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독립의지를 심어주는 데 주력하였다.

1921년 2월 23일자 2-3면에 게재된 해외뉴스 및 사회 관련 기사는 이를 확인해준다. 이날 3면에는 15건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5건은 항일적 보도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를 담고 있다.

23) 황우선, “「기독신보」(1915-1937): 초창기 한국교회 신문 연구,” 162; 황우선·김성해, “역사 속의 집단 정체성: 「기독신보」의 핵심 아젠다와 규범적 영역을 중심으로,” 134.

주로 해외뉴스를 다루면서 3면 5단에 덧붙여진 사회면 성격의 기사에서 ‘日本人?’이란 제목의 기사에 “가정부를 憑籍하고 強盜질하다가 逮捕”란 부제의 사건기사는 제목만 보아도 반일적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 위에는 ‘독립단기관지에 暗殺장려 懸賞’이란 제목에 “도지사의 머리는 일천오백원, 일이삼부군수는 일백원”이란 부제를 달아, “친진법조계에서 발행하는 독립단의 배일신문 농광상 게재된 바가 좌와 같다. 도지사의 머리 하나에 일천오백원, 일, 이, 삼부장과 군수의 머리는 백원, 경관과 헌병은 오백원, 친일조선인 이백원 이와 같이 게재한 신문이 안동현 모처에 도달하였다고 운운하더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sup>24)</sup>.

1933년 7월부터 1937년 7월 중간호를 발행하기까지는 갈등기이다. 최초의 한국인 사장 전필순과 조선예수교서회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와 달리 교육문제를 다룬 사설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사설은 생활문제와 사회문제 위주로 게재되었다.

이러한 시기 구분 외에 「기독신보」의 사설은 크게 기독교, 교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설은 전체 1478건 중 21%인 309건이다.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설 309건 중 35.6%인 110건을 기독교 정체성(Christianity)을 나타낸 사설로 분류하였는데, 전체 사설 중에서는 7.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독교 정체성을 나타낸 사설의 주제로는 사회적 약자 배려(63건, 57.8%)를 비롯해 절제(21건, 19%), 가정(17건, 15%), 기타(9건, 8.3%) 등이다.<sup>25)</sup>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

24) 「기독신보」 1921.2.23.

25) 문선옥은 석사논문 “「기독신보」(1915-1937) 사설 연구,”(성신여대 교육대학원, 1994)에서 「기독신보」 사설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교육, 기독교의 사회적 사명, 경제, 풍습교정, 위생, 기타 등의 6가지로 분류했다. 황우선과 김성혜는

교인들까지도 기독교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것, 절제하는 생활방식, 가정을 중시하는 것임

아젠다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를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10명의 연구자들이 5년여(2003.4-2008.5) 동안 사설을 읽고, 2년여에 걸친 편집과정을 거쳐 2011년 『「기독신보」 사설 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 사설의 주제를 26가지 소분류로 정리하였다. 이 중 기독교 또는 교회에 관한 내용 위주의 주제가 아닌 9가지 주제(교육문제, 농촌문제, 사회문제, 사회주의 운동, 생활문제, 여성운동, 절제운동, 청년운동, 해외소식)가 있다. 황우선과 김성해는 「기독신보」의 사설을 분석하면서 파일럿 스터디에서 「기독신보」의 사설을 확인한 결과 이 9가지 항목을 핵심 아젠다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지만 핵심 아젠다만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독신보」의 사설 내용을 7가지 규범적 영역(보편적 가치 추구, 공동체 개조 노력, 지도자의 책임, 집단 정체성의 방향, 교육의 역할, 올바른 인간상, 신앙의 원칙)으로 다시 분류하여 이들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분석하였다(황우선·김성해, “역사 속의 집단 정체성: 「기독신보」의 핵심 아젠다와 규범적 영역을 중심으로,” 137, 145).

<표 2> 「기독신보」 사설의 핵심 아젠다별 규범적 영역

분류	사회	생활	교육	청년	해외	농촌	여성	절제	사회주의	합계 (비율)
보편적 가치 추구	48	14	11	4	9	7	1	0	0	94(30)
공동체 개조 노력	46	26	3	2	0	4	1	5	3	90(29)
지도자의 책임	9	3	10	7	0	1	0	0	0	30(9.7)
집단 정체성의 방향	4	8	0	7	6	0	0	0	1	26(8.4)
교육의 역할	6	0	18	0	0	0	0	0	0	24(7.8)
올바른 인간상	10	7	2	0	0	0	3	0	0	22(7.1)
신앙의 원칙	0	9	1	1	0	0	0	0	0	11(3.6)
기타	5	3	0	3	1	0	0	0	0	12(3.9)
합계	128 (41.7)	70 (23)	45 (14.9)	24 (7.1)	16 (5.2)	12 (4)	5 (1.6)	5 (1.6)	4 (1.3)	309 (100%)

을 잘 알고 있다.

「기독신보」가 사설에서 사회적 차원<sup>26)</sup>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독교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부분, 사회구조, 모든 피조세계를 변화<sup>27)</sup>시키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웨슬리가 모든 인간의 삶의 차원에서 치유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숙고하게 한 것<sup>28)</sup>과도 뜻을 같이 한다. 사설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 쟁점을 통해 선교활동에 중요한 의식을 고취<sup>29)</sup>시키는 동시에 보편적 세계시민<sup>30)</sup>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기독신보」는 사설을 통해 기독교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인식하며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3. 사회적 약자 보호

「기독신보」 사설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로는 빈곤 및 구제가

26) 김영택, “영국의 웨슬리 성화운동과 미국 A.B. Simpson의 사중복음—성결교 신학의 토대: 연속성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42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103.

27) 안승오, “에큐메니칼 선교의 ‘선교 내용’ 이해,” 『신학과 선교』 43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160.

28) 최형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서 본 존 웨슬리의 선교신학,” 『신학과 선교』 43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128.

29) 구성모,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송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45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4), 300.

30) 한예빈, “선교적 차원에서 바라본 한국의 다문화 가정,” 『신학과 선교』 44집(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4), 332.

필요한 이들, 아동, 노동자, 여성, 병자, 민중 등이다.<sup>31)</sup> 기독교 정체성을 나타낸 110건 중 63건으로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빈곤 및 구제가 필요한 이들 18건(17%), 아동 13건(12%), 노동 12건(11%), 여성 11건(10%), 민중 5건(4.6%), 병자 4건(3.7%) 순이다. 이 중 주목할 것은 아동, 노동, 여성에 관한 사설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아동 인권이나 노동 인권, 양성평등 또는 여성 인권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아동, 노동, 여성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은 주제이기에 시대를 앞서가는 진보적 사회의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원조나 개발 등의 복지활동 및 사회개혁”<sup>32)</sup>에 기여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문화권의 선교지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는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지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접근”<sup>33)</sup>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31) 예수가 가르친 두 가지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마 22:37-40).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예수는 공생애 사역 중에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데 힘썼으며, 이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독교적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도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가르치고 있다(신 10:18-19,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속 7:9-10,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32) 김성민, “기독교 사회정의를 통한 사회통합적 선교전략 연구,” 『복음과 선교』 37집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7), 82.

33) 정홍호·키우콩투안,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울산장로교회 베트남 이주민의

아젠다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여 제시하는 신문 사설의 역할이 매우 효과적이다.

<표 3>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설

주제	내용	건수(%)
사회적 약자 보호	빈곤 및 구제 필요한 이들	18(17)
	아동	13(12)
	노동	12(11)
	여성	11(10)
	민중	5(4.6)
	병자	4(3.7)
		63(57.8)

「기독신보」는 빈곤 및 구제가 필요한 이들과 관련된 사설에서 가난 구제를 비롯해 가뭄과 수해 등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들을 위한 도움, 장애인 지원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쳤다. 대홍수 등 자연재해의 참상을 겪을 때에는 서로 도와 역경과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남지역의 수해, 영남지역의 수재민 등 국내뿐만 아니라 서일본에서 풍수해를 당한 재일조선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구자 수용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장애인을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궁의 원인, 빈궁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1929년 6월 5일자에는 “굶어 죽는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듣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기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구제의 손길을 요청했다. 뼈가 부서지도록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37집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7), 306.

애플 씨도 먹을 것을 못 얻고 입을 것이 없어서 만주로 가고 홀태바지를 입고 하와이로 가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면서 관북지방의 홍수피해, 삼남지방의 가뭄피해(한재)가 심각한 것에 크게 우려하였다. 굶어서 싸우고, 굶어서 병나며, 굶어서 죽으며 또 죽어가는 것이라며 굶주림의 고통스러운 실태를 전하면서 구제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개인의 빈궁은 물론 사회적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빈궁을 지적하며 구제하고, 또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눈물 흘리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큰 문제가 빈궁이라고 전제하며, 빈궁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했다. 천재, 화재, 질병 등을 빈궁의 자연적 원인으로 제시하며 사막과 척박한 땅, 흉년, 홍수, 화재, 질병으로 인해 많은 부(富)가 손실된다고 지적했다. 인위적 원인으로 정치, 교육, 종교, 사회, 위생, 경제 등을 꼽았다. 빈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식이라며, 돈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빈궁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식하면 천연적 부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 남에게 빼앗긴다는 것이다. 세상을 흑하고 백성을 속이는 미신의 종교가 더한층 가난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가가 무산자를 기계로 인정(취급)하여 죽도록 종으로 부리지만 가족을 호구(부양)할만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빈궁의 원인으로 보았다.

빈궁의 대책으로는 할 수 없는(불가능한) 역경이라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며, 정신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을 해야 빈궁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전쟁 후 매일 16-17시간씩 일을 한 결과 전쟁 이전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소개하며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강조했다. 단체로서는 조합운동을 통해 가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협동과 봉사의 정신 아래에서 생산조합, 소비조합을 조직화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sup>34)</sup>

아동과 관련된 사설에서는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 아동은 교육을 잘 받아야 하며 부모가 아동교육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들이 지식을 잘 배워서 국가의 충량이 되어 공헌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에게 존경심을 갖고 목숨을 버리는 각오로 아동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 자녀들을 좋은 사람으로 양성하면 가정과 나라, 온 세계가 모두 그들로 인하여 문화가 증진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쇠퇴 또는 파멸까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린이들은 유순하고 총명, 진실하며 모본을 잘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큰 교육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 부모들은 자녀의 어린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푸대접과 학대를 당해온 어린이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가치와 인격을 존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어린이들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신여기는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불행을 초래하는 아동의 조혼 약혼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과 해외동포 아동들의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농촌의 아동들을 위해 탁아소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문맹을 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녀평등의 아동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up>35)</sup>

34) 1922.8.9.; 1923.7.4.; 1926.2.24.; 1927.5.4.; 1928.2.22.; 1928.3.21., 28.; 1928.12.12.; 1929.2.27.; 1929.6.5.; 1930.7.16.; 1932.10.5.; 1933.7.12.; \* 12.13; 1934.8.1., 15.; 1934.10.10.; 1935.7.31.

35) 1916.12.13.; 1917.7.18.; 1916.9.5.; 1918.12.18.; 1920.4.7.; 1920.12.8.; 1923.4.18.; 1923.8.1.; 1926.5.26.; 1928.8.8.; 1932.7.13.; 1935.6.5.; 1937.6.9.

노동과 관련된 사설에서는 노동자의 인권과 처우 등을 중심으로 열악한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사설의 주장을 통해 당시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노동자의 노조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노사분쟁 시 화해할 방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라며 노동자의 피땀을 긁어모아 부정당한 이득으로 큰 재산을 얻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었다. 1926년 4월 14일자 사설에서는 “공장에서 작업하는 직공이 기계의 고장으로 상해를 당하였던지 위험성 직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병신이 될 경우는 그 공장 주인이 보호방법과 배상제도를 마련하여 일반 노동자를 보호케 할 일”이란 부제<sup>36)</sup>를 붙여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산업재해 보상방법을 강구하고, 위험한 노동 조건을 삼감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인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공업이 전쟁보다 더하다며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주의에 주의를 더하여 작업 상태를 안전하게 할 때 금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이나 장시간 노동을 하면 피곤하여 몸에 병을 얻어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다수가 일하는 공장이나 금광, 정미소 같은 곳의 안전상태가 불완전하여 직공들의 건강상태를 해치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제도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은급금제도 시행이나 보험을 장려하여 노약자가 되었을 때 보호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이

36)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를 재고함”란 제목으로 15회에 걸쳐 사설을 연재하면서 각 사설의 내용에 따라 부제를 붙였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서양에서도 여전히 부녀자나 아동들이 매일 15시간 노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8시간 노동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 10시간이나 12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과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축소를 위해 교회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인격을 수련하고 고상한 생활을 맛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도 7일 중 하루를 정해 휴업해야 한다며 노동자 일요휴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에게 최고 한도의 품삯을 지불하여 노동자들이 생활비로 고난을 받지 않고 고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며 노동자 임금의 적정 수준도 제시하였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전국 철도파업을 소개하면서 이는 정치적 자유 외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동맹파업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업자 문제가 현대사회의 큰 고통거리라며 누구든지 노동만 하면 실업의 고통, 고용의 불공평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사회에 유용한 학문과 지식을 얻어야 하고 취직까지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취업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sup>37)</sup>

여성과 관련된 사설에서는 여성학에서 설명하는 이상적 수준의 양성평등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여성 존중,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38)</sup> 천시되는

37) 1920.4.28.; 1926.4.14.,21; 1926.5.5.,12.,19.,26.; # 6.2.; 1928.2.29.; 1935.3.20.; 1936.3.11.; 황우선·김성해, “역사 속의 집단 정체성: 「기독신보」의 핵심 아젠다와 규범적 영역을 중심으로,” 148.

38) 동서양을 막론하여 역사적으로 배우자 사이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관계에 있었다. 영국의 결혼식 기도서 내용 중 아내는 남편과 똑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성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력을 쓰는 시대, 생존경쟁이 맹렬한 시대에는 완력이 강한 남자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았지만 시대가 바뀌어 가정생활이 완전한 때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지위가 본래 남자보다 낮은 것 같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동격으로 만들어졌고 예수가 낮고 천시되는 부인의 지위를 높였다며 양성평등 또는 여성지위 향상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다. 여성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여성이 노동하는 중에 위생과 정조의 안전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여자가 지켜야 할 신의와 관련하여, 신여자는 유부남과 교제하여 다른 가정이 이혼으로 파탄 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자대학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여자절제회가 음주, 매음, 흡연, 낭비의 악습을 버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9)</sup>

할 것”을 맹세했지만, 16세기까지도 아내만은 여기에 더하여 “복종할 것”을 서약했다. 여성에게 결혼은 무조건적 축복이 아니라, 자유를 포기하고 남편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남편의 권위와 번덕, 주먹질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했다. 매릴린 엘름, 『아내의 역사』, 이호영 역 (서울: 책과 함께, 1995) 174, 189);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는 조선전기 유교적 가부장제 확립으로 아들의 상속권이 강화되었고,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위치 강화가 필요해졌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존재감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중요해졌다. 최흥기 외 7인,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서울: 아카넷, 2006), 255-256. 이는 양성평등의 배우자 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조선시대뿐 아니라 일제강점기까지도 크게 달라질 수 없었다.

- 39) 일제강점기 기독교의 절제운동과 관련하여 윤정란은 한국기독교 여성들이 1930년대 들어서부터 기존의 농촌계몽운동에서 절제운동의 활성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1932년을 기점으로 절제운동의 확산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배경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일제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으로 인해 기독교여성들의 농촌운동이 쇠퇴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1928년 중반 이후 다시 전개된 사회주의자들의 제2차 반기독교운동과 1930년대 초반 신비주

#### 4. 절제 및 가정의 가치

한국교회가 금주, 금연 등 절제를 통한 경건생활을 중시하며 지키게 된 배경은 선교사들의 신앙 지도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초창기 내한 선교사들은 조선사회에 음주와 흡연이 만연해 폐단이 큰 것을 고쳐야 할 폐습으로 여겼고, 철저한 금주와 금연을 기독교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 기독교인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신자로서 구별된 삶의 자세로 받아들였다. 이는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구원의 해악물을 멀리하는 신앙적 자세로 보았던 것이다. 초기 세례교인 문답을 보면, 금주, 금연이 세례교인이 되는 중요한 자격으로 작용했으며, 음주나 흡연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에서는 기도와 권면으로 다독이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회에서 엄히 치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전통은 1920년대부터 절제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었다<sup>40)</sup>. 1923년 9월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조직이 조직되었고, 절제운동을 통한 세계평화, 평화롭고 깨끗한 새나라 만들기, 악습배격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금주, 금연 등 절제운동에 나섰다.<sup>41)</sup>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

의적 소종과운동의 발흥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1932년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사회신조를 채택함으로써 기독교 여성들의 절제운동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1930년대 초 도시화의 발달로 인해 퇴폐문화의 확대를 야기하였고, 이것은 기독교여성들이 주도하던 절제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 여성들의 절제운동은 금주금연운동, 공사창폐지운동, 합리적인 소비절약운동, 아편추방운동 등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윤정란, “일제시대 한국기독교 여성운동 연구,” 숭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9), 175-176.

40) 윤은순, “초기 한국기독교의 금주금연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집(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23, 27.

41) 방호선,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와 그 사업,” 『새가정』 (서울: 새가정사,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미성년자 음주·흡연·금주법의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sup>42)</sup>.

절제에 관한 「기독신보」의 사설은 21건(19%)이다.<sup>43)</sup> 결혼과 이혼, 부모 등 가정에 관한 사설은 16건(15%)이며, 기타 9건(8.3%)이다.

<표 4> 절제, 가정 등에 관한 사설

주제	내용	건수(%)
절제	금주, 금연 등	21(19)
가정	이혼, 부모 등	16(15)
기타	교회비판, 건강, 동물 등	9(8.3)

절제와 관련된 사설은 주로 금주, 금연, 공창제 폐지 등에 관한 것이다.<sup>44)</sup> 그만큼 당시 음주, 흡연, 매음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음주의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지적했는데, 음주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며 미국은 금주단행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sup>45)</sup> 세상 모든 불행의 주요한 원인은 게으름과

1970(10)), 43-44.

42) 백종구, 「한국 개신교 절제운동의 기원과 전개-금주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1)집(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3), 378-399.

43) 절제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십계명 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금욕과 절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출 20:13-17).

44) 공창제 폐지와 관련된 사설은 절제, 가정, 여성의 영역에서 모두 관련되어 있다.

45)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므로 금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며, 게으름은 술에서 나고, 술은 죄악을 낳고, 죄악은 모든 불행을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법률로 금주를 정했다고 소개했다.<sup>46)</sup> 당시 일제가 공창을 운영했는데, 송연옥은 일제강점기 공창제 도입과정의 배경으로 조선에 파병된 일본인 병사를 쉽게 다스리고,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이주를 선전하는 조선 안내책 출판이 하나의 붐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유곽 정보가 들어있었던 것을 근거 중 하나로 보았다.<sup>47)</sup> 십계명에서도 성적 범죄인 간음을 금지했기 때문에(출애굽기 20:4) 기독교에서 공창제 폐지를 주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정신을 건전하게 몸을 든든하게 한다며, 이를 위한 방도가 절용(절제)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간의 절용, 정력의 절용, 물질적 절용을 제시했다. 사약(死藥) 같은 담배나 아편을 피우는 것과 술을 마시는

---

롬 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46) 1928.1.11. 이날 신문은 아예 금주호(禁酒號)를 발행하여 1면 사설은 물론 나머지 9개 지면에 금주에 헌신한 이씨, 조선금주운동단 금후계획, 황주조선금주운동단 금주선전광경(사진 기사), 술의 과학적 영향, 술 먹는 자와 질병, 금주 기도는 쉬지 않는다, 각국의 금주운동, 동물과 술(코끼리의 경험, 지혜있는 개, 원숭이의 술주정, 도야지를 보고 배호라), 술의 마귀, 소위 기독교국과 금주운동, 금주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금주의 필요, 심리학상으로 본 술의 해독, 금주운동의 선구(푸란시 스아일랜드), 술과 죄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실어 음주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사설의 제목은 “금주호(禁酒號) 발행(發行)에 제(際)하야”이다. 조선에서 금주할 이유로는 연간 소비되는 술값과 담뱃값을 제시하면서 금주금연만 하면 30년 후에 조선인 가정마다 기와집에 살 수 있다며 음주와 흡연이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47)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63.

것, 저급의 오락에 시간과 정력 물질을 허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술 마시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멸망은 물론 사회적으로 다른 이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시간적으로 자자손손에 해독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질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파멸을, 사회의 경제적 운명도 좌우된다는 것이다. 술은 악업, 범죄, 과실, 병독, 불화, 타락, 태만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금주는 경제적, 위생적, 교육적, 평화적 처지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절제운동을 조선의 급무로 규정하고 주색잡기(酒色雜技)는 패가망신의 근본이라고 지적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색을 가까이하면 몸을 망치게 되며, 투전 골패 화투 등 잡기를 하면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주색잡기로 패망한 이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색잡기의 악습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취미를 얻게 할 것, 모임을 조직하여 악습을 끝까지 금지할 것, 교회규칙을 복종케 할 것, 정부가 법령으로 악습을 금지할 것,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폐해를 설명하여 어릴 때부터 미리 금지할 것 등으로 제시하였다.<sup>48)</sup>

가정과 관련된 사설은 결혼, 이혼, 부모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정이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와 자녀는 각각의 감정을 자제하고 인내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공경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 부모공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행하는 가장 악한 사상은 자기중심적

48) 1920.6.16.; 1922.6.16.; 1922.12.13.; 1923.5.9.; 1923.6.6.,13.; 1924.5.14.,21.; 1928.1.11.; 1931.8.26.; 1931.12.9.; 1932.2.3.; 1933.9.27.; 1934.8.8.

이기주의라며 이기주의가 가정불화, 사회분쟁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개인항락주의 때문에 가정의 윤리를 무너지고 있다며 부모 섬김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은 동거가 아닌 결혼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거는 정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결혼생활의 중심은 부부사이의 사랑과 미덕에 있음을 강조했다. 부부의 미덕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부부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가정을 파괴하는 이혼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혼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성경적 근거로 이혼이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sup>49)</sup> 가정파괴에 대해 한탄하였으며, 연애와 잦은 파혼이 신성한 사회를 문란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경성부가 발표한 연간 혼인 1,935건, 이혼 259건을 제시하며<sup>50)</sup> 실제 이혼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고, 미가 없으니, 이상이 맞지 않으니, 무식하니 등의 사유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당시 이혼의 사유를 추정할 수 있다. 이혼은 매우 잔인한 것으로 보았고, 기독교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 출산을 꺼려하는 것을 비판하고, 여자가 가정정리를 알지 못하고 직업부로 나아가는 것은 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며, 여성은 가정살림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sup>51)</sup>

49) 이혼은 칠거지악이 아니면 아내를 못 버린다는 말을 인용한 것에서, 뿌리 깊은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여성관도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926.6.23).

50) 1928.8.15. 1927년의 이혼통계로 보인다.

51) 1916.3.8.; 1916.2.23.; 1917.4.4.; 1922.11.22.,29.; 1926.3.3.; 1926.6.23.; 1927.4.27.; 1928.3.14.; 1928.8.15.; 1928.11.28.; 1930.8.20.,27.;

이밖에 교회 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설도 일부 게재됐다. 기독교인들의 이중적 생활태도를 지적하였고, 조선의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회 안에서 잘 속여 먹는 이용주의가 심각한 것, 그리스도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청년들, 교회 내의 분쟁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sup>52)</sup>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사설도 게재됐다. 잠언 12:10(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은 잔인한 것으로써 자비를 삼느니라)을 인용하면서 동물 취급 시 주의여하로써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동물을 학대하면 문명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동물을 잔인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와 말의 등이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끌게 하며 차(車)에 하물(荷物)을 적재하여 두 마리 소와 말 두 마리가 끌 것을 한 마리가 끌게 하며 완악한 자는 채찍이나 몽둥이로 맹타하거나 더 심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비(非)교인을 권고하여 말과 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이나 가축은 절명 시에 고통을 적게 느끼게 해야 하며 차에 실을 때에는 도로의 험악 여부를 생각하고, 동물이 병에 걸리면 사람을 대하듯이 치료해주

1932.8.10.; 1934.5.9.; 1935.3.13.

52) 1929.7.24.; 1936.4.29.; 1937.1.27.; 1937.2.3.; 1937.3.10.; 1937.5.12. 교회를 비판하는 사설은 주로 1937년에 게재됐는데, 이 시기는 전필순 사장이 「기독신보」의 소유권에 대해 한국교회(조선예수교서회)와 갈등을 빚다가 갈라선 이후였다. 1935년 9월 26일 조선예수교서회는 전필순의 사장임기 만료에 따라 해임시켰고, 이에 앞서 전필순은 1935년 9월 18일자 사설에서 “완전히 따로 서면서”란 제목의 글에서 조선예수교서회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황우선, 2011, 228, 231).

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말과 같은 동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 정신임을 강조한 것이다.<sup>53)</sup>

## 5. 맺음말

### 1) 결론

『기독신보』는 21년여 동안 주간으로 발행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설을 통해 시대적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이 신문의 사설은 크게 기독교, 교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영인본에서 확인된 전체 사설 1,478건 중 21%인 309건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었다.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설 309건 중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나타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절제, 가정 등에 관한 사설은 35.6%인 11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사설 중 7.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110건 중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설은 63건으로 57.8%를 차지했고, 절제 21건(19%), 가정(부모, 결혼, 이혼 등) 17건(15%), 기타 9건(8.3%) 등의 순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의 내용으로는 빈곤 및 구제가 필요한 이들 18건(16%), 아동 13건(12%), 노동 12건(11%), 여성 11건(10%), 민중 5건(4.5%), 병자 4건(3.6%) 순이다. 이러한 사설을 통해 기독교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당시 한국교회가 실현하고자 했던 기독교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던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의미를

---

53) 1922.8.16.

부여할 수 있다. 당시 친일파 등 일부 자산가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 모두가 일제강점의 식민 피지배 상태에서 일제의 수탈로 인한 고통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자의 처지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 재해나 장애 등으로 구제가 필요한 이들, 아동,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방안도 제시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되는 아동학대 문제를 지적했다. 아동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해주고 잘 교육시키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아동들의 처지는 대부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데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쉬운 시대였는데 아동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노동 관련 사설에서는 주로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과 인권존중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조권리 보장과 노사분쟁 시 화해 방안 마련, 산업재해 시 보호방법 및 배상제도, 적정수준의 임금 및 노동시간 보장, 은급금제도 시행 등을 촉구했다. 1920년부터 1936년 사이에 간헐적이지만 노동자를 위한 사설이 게재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관련 사설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과도한 노동 금지, 여성 노동환경의 안전성, 여성교육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시대적으로 여성문제에 관하여 진일보한 입장을 보였으나 여전히 유교적 가부장제 가치관은 유지되었다. 신여자는 유부남과 교제하여 남의 가정 파탄 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불륜의 책임을 남성과 여성 공동이 아닌 여성에게 돌린 것이다. 이혼의 사유로 칠거지악을 인용한 것도 남성중심 가부장제 가치관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연 금주 놀음금지 등 절제를 촉구하고 결혼과 이혼, 부모 등에 관한 가정문제도 지적했다. 주색잡기(酒色雜技)를 패가망신의 근본으로 지적하며 청년들이 주색잡기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주를 법으로 정한 미국의 예를 들면서 음주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금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풍기문란의 개선과 공창제 폐지도 주장했다. 가정과 가정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정자제, 인내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을 당부하고,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괴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듯 정성껏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게 기독교 정신임을 역설했다. 이와 같이 「기독신보」는 사설을 통해 오늘날에도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아동과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절제, 가정 등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는 근대한국언론의 초창기에 시대를 앞서가는 뉴스 콘텐츠 및 사회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활동을 펼칠 때,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한계

이 연구는 몇 가지 면에서 한계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먼저 21년여라는 긴 세월 동안 주간으로 발간된 「기독신보」가 1,478건의 사설을 게재한 것 중 불과 75%에 불과한 110건을 선별하여 분석했다는 점이다. 지극히 부분적인 내용을 일반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나 교회를 주로 다룬 사설을 제외하고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실로 제한하여 309건이 선별되었고, 다시 이 309건 중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주제로 한정하다보니 110건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한 게재된 기간 21년여 동안 총 110건의 게재건수는 연평균 52건, 즉 10주에 한 차례 정도 게재된 빈도에 불과한데 기독교 정체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는 오늘날 인터넷 네트워크에 의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속도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게재 빈도가 간헐적이었다 하더라도 분석결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신보」의 발행기간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특징과 사실 내용의 변화를 제시했는데, 실제 사례분석에서는 시기별 구분을 왜 하지 않았느냐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발행기간이 긴 데 비해 분석 사례는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세 시기를 분석단위로 삼지 않았다.

아울러 1920년부터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간 일간신문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기독교 정체성의 분석 기준으로 삼은 사회적 약자 보호, 절제, 가정 등에 관하여 「기독신보」와 일반 신문을 비교하여 사실 게재 수나 내용 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방대한 규모의 연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연구의 주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독신보」 사실의 전수 조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실 중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실을 선별하여 분석함으로써 초창기 한국교회가 추구하고자 한 기독교적 가치를 그려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기독신보」가 사실을 통해 당시 시대적으로 공론화하기 어려웠던 아동, 노동,

여성 등에 관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할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K C I

## 참고문헌

- 구성모.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송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45집 (2014): 277-310.
- 『기독신보』 영인본(1915-1937). 한국기독교사연구회.
- 김성민. “기독교 사회정의의를 통한 사회통합적 선교전략 연구.” 『복음과 선교』 37집 (2017): 81-125.
- 김영택. “영국의 웨슬리 성화운동과 미국 A.B. Simpson의 사중복음—성결교 신학의 토대: 연속성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42집 (2013): 37-108.
- 김태연. “1910년-2010년 현대 선교의 흐름 평가.” 『신학과 선교』 36집 (2010).
- 매릴린 엘름. 『아내의 역사』. 이호영 역. 서울: 책과 함께, 1995.
- 문선옥. “『기독신보』 (1915-1937) 사설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영환.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갈등, 대립, 그리고 미래선교의 대안적 제시.” 『신학과 선교』 37집 (2010): 2-52.
- 방호선.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와 그 사업.” 『새가정』 (1970. 10): 43-47.
- 백종구. “한국 개신교 절제운동의 기원과 전개—금주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1)집 (2003): 379-406.
-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장제 도입.”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안승오. “에큐메니칼 선교의 ‘선교 내용’ 이해.” 『신학과 선교』 43집 (2013): 157-186.
- 윤은순. “초기 한국기독교의 금주금연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집 (2010): 5-33.
- 윤정란. “일제시대 한국기독교 여성운동 연구.” 숭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은경. “한국의 정치변화와 교회의 정치에 대한 사회참여 연구.” 『신학과 선교』 41집 (2012): 177-202.
- 이은미.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연구.” 『신학과

- 선교」 42집 (2013): 215-246.
- 이종만. “선교적 관점에서 본 진보적 기독교 통일운동의 형성 과정.” 『신학과 선교」 36집 (2010).
- 이현주. “선교현장 이해를 위한 민족지 고찰.” 『복음과 선교」 38집 (2017): 131-167.
- 정진석 “『기독신보』와 한국의 언론문화.” 『기독교사상』 34-6호 (1990): 138-147.
- 정홍호 · 키우콩투안.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울산장로교회 베트남 이주민의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37집 (2017): 279-306.
- 제자원. 『그랜드종합주석-누가복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5.
- 최형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서 본 존 웨슬리의 선교신학.” 『신학과 선교」 43집 (2013): 127-155.
- 최흥기 외 7인.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서울: 아카넷, 2006.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기독신보』 사설자료집』, 2011.
- 한예빈. “선교적 차원에서 바라본 한국의 다문화 가정.” 『신학과 선교」 44집 (2014): 299-337.
- 황우선. “『기독신보』 (1915-1937): 초창기 한국교회 신문 연구.” 목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황우선 · 김성혜. “역사 속의 집단 정체성: 『기독신보』의 핵심 아젠다와 규범적 영역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0-4호 (2015): 125-169.
- <http://kostat.go.kr> (통계청)
- [www.holybible.or.kr](http://www.holybible.or.kr) (신약 · 구약 성경)

■ *Abstract*

Constructing the Christianity through Religious Media  
—Case Study about Editorials Deal with Social Minority,  
Temperance, and Family

Hwang, Woo-Seon

(Daeduk University, Christian Journalism)

The media is believed to take a critical part in constructing identity known as identify politics. The christianity as a typical collective identity of the early 20th century in Korean churches remains vague though. This paper thus sheds key lights on the Christian Messenger published in 1915 as the only newspaper written in Korean. Method of analysis was to investigate those editorials which attempt to influence church attendants. Such subjects as how to care about social minorities, religious virtues and family norms were selected for this purpose. With analyzing total number of 110 samples, it turned out the following results. As to social minorities, such figures as the poor and in need, children, working class, female and the diseased were primarily mentioned. Also did the paper put emphasis not only on providing church attendants with logical explanations but possible solutions in way of constructing collective mood and attitude. This paper would be a solid step for making sense of the media's role in religious community.

주제어

기독신보, 기독교 담론, 집단 정체성, 저널리즘, 선교  
The Christian Messenger, Discours politics, Collective  
Identity, Media Power, Christianity

\* 논문투고일 2017. 10. 24. 심사완료일 2017. 11. 27. 게재확정일 2017. 11. 29.

K C I